“장애 따른 차별 없는 세상을”

안동장애인福 송년행사, 우수봉사자 등 격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12월 14일 안동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나누는 사랑,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송년행사를 열고, 한 해 동안 복지관 운영에 힘을 보탠 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사진〉 행사에는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과 봉정사 주지 도륜 스님, 연미사 주지 등운 스님, 김동룡 안동시 부시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복지관 이용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송년 기념식과 2부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이용자들에 대한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날 안동시장상에 김종훈 · 김용호 씨, 김광림 국회의원상에 김지현 · 김현중 씨, 안동시의회의장상에 임연조 · 성규숙 씨,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고운사지부장상에 권용혁 · 김순희 씨, 안동사암연합회장상에 축서사 신도회 · 신시장해물 · 김금순 · 김명희 씨가 선정됐다.

복지관 운영위원장 도륜 스님은 인사말에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태고종 전북, 주지총회 · 지방종회

베트남과 한국불교문화유산 공연 추진키로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과 전북종무원 종회(의장 법전)는 12월 14일 주지총회 및 지방종회를 개최하고, 전북종무원 사찰 분담금 조정안과 2019년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또 봉서사와 관련해 봉서사 대책위원장으로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추대했다.

새해 전북종무원은 분원사찰을 순방하며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비전통사찰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매년 승려 연수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는 내년 5월 베트남 호치민시와 닥락성에서 한국불교문화유산 공연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 태고문화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베트남 한글학교 설립과 식수대 지원사업, 군부대 포교활동, 자비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한편 주지총회에 참석한 스님들은 ‘전북종무원 공찰 봉서사 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교구 종무원들의 힘을 모아 총무원 집행부에 의견을 전할 것을 천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새해엔 군산불교 발전 모색”

군산사암연합회, 군산불교의 밤 개최



군산사암연합회(회장 도연)는 무술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도약을 다짐하는 군산불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12월 15일 군산 한원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과 성흥사 송월 스님, 관음사 도천 스님 등 연합회 스님들과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장, 불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성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다사다난했던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군산불교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은 군산여고 1학년 원아영 학생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군산불교연합합창단인 그린비합창단의 축하공연과 각 사찰별 장기자랑 및 행운권 추첨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佛都 부산, 추운 겨울 나눔에 ‘훈훈’

승가 · 신행단체, 연탄 · 김치 등 자비 나눔 줄이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도(佛都) 부산을 대표하는 신행단체와 기관들이 추운 겨울 지역민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김장 나눔과 연탄 및 장학금 등 풍성한 나눔 소식이 연이어 전해져 부산을 마음 따뜻해지는 자비로 뒤덮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는 연말을 맞아 12월 11일 부산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따뜻한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진행하고 나눔을 실천했다. 박수관 회장과 임원들은 직접 김치를 담가 부산진구청에 연탄 1만7800장과 김치 2000kg을, 금정구청에 연탄 1만장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7일에는 부산진구 부암1동 난방 취약가구에 연탄배달 봉사를 펼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다.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도 12월 12일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부산 비즈니스 호텔에서 ‘사랑나눔 하루찻집’을 개최했다. 하루 찻집에는 박수관 회장을 비롯해 봉사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여했다.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은 봉사 모임을 운영, 목욕봉사,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박수관 회장은 “추운 겨울 이웃을 위한 나눔이 필요한 때에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온기를 전하고자 행사를 열게 됐다”며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은 매년 소외 이웃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으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자비나눔 승가모임인 화엄승가회(회장 자인)는 12월 16일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서 ‘자비의 연탄 나눔’을 진행했다. 연탄 나눔에는 화엄승가회뿐 아니라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 부산교수불자회(회장 장상목),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김정혁),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동문회(회장 최은희) 등이 대거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스님과 재가자 등 사부대중
연말 이웃돕기에 의기투합
소외계층 물품 · 기금 지원과
학생들 위한 장학금 전달도

참여한 모든 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연해 모은 기금으로 연탄 1만장을 마련했으며, 연탄은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위치한 난방 취약 계층 총 45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서 자인 스님은 “따뜻한 마음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며 “모두가 함께해 더 아름다운 행사가 됐다. 나눔을 위해 화합하는 이 마음이 사회를 밝게 만든다”고 격려했다.



불도 부산을 대표하는 대표 신행 단체와 사찰이 추운 겨울 이웃을 위한 나눔 행진을 이어갔다. 사진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가 김장을 담그는 모습.

천불정사(주지 고담)는 12월 19일 경내 법당에서 종립학교 금정중학교에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에 이어 천불정사는 다가올 동지를 맞아 부산대 앞 정문에서 학생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동지 팥죽 나누기도 진행했다.

주지 고담 스님은 “동지가 되어도 집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고향을 잠시나마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팥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금정중학교와 연계해 인재불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성문)는 12월 19일 사상르네상스 뷔페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나눔을 위한 일일 찻집을 개최했다. 장학금은 지역 초 · 중 · 고 및 대학생 26명에게 각 30만원씩 전달했으며, 하루 찻집 수익금은 장학기금 및 소외계층 후원자금, 빈곤 해외국가 구호기금 등으로 사용된다.

연제구불교연합회(회장 무관)는 12월 17일 부산시청 등대광장에서 팥죽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새해 덕담과 복을 기원했다. 연제구불교연합회는 팥죽 2000인분을 시민들에게 전했으며, 이에 앞서 백미 2000kg를 연제구청에 전달해 따뜻함을 더했다. 행사에는 연제구불교연합회 부회장 법승 스님을 비롯한 회원 스님들과 이성문 연제구청장, 각 회원 사찰 신도들이 참석했다.

부회장 법승 스님은 “작지만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다. 추운 날씨에도 와주신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범어사 ‘성보관’ 새로 짓는다

2020년 3월 완공 예정
문화재 보존 역량 기대



범어사는 12월 19일 상마마을 인근 성보관 공사터에서 ‘성보관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 시작을 알렸다.

스님과 불자들이 범어사 성보박물관인 ‘성보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들어 올렸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12월 19일 상마마을 인근 성보관 공사터에서 ‘성보관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 시작을 알렸다. 착공식은 개회식에 이어 내빈 소개 및 경과보고, 주지 경선 스님의 기념사,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의 축사, 방장 지유 스님의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시삽으로 공사 시작을 알렸다.

범어사 경내에 위치한 기존 성보박물관은 공간이 협소해 문화재 보관 및 전시에 어려움을 겪어 새로운 성보박물관 건립 요청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새롭게 건립될 성보관은 총 125억4400만원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4,940㎡ 부지에 지상 2층 · 지하 1층, 연면적 2,970㎡ 규모로 지어진다. 내부는 전시 · 연구 중심의 공간과 수장고 등이 들어선다. 완공은 2020년 3월 예정.

현재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부산시 문화재의 3분의1인 100여 건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삼국유사〉를 소장해 중요도가 높다. 보물인 〈삼국유사〉는 현재 국보 승격을 신청한 상태다. 또 전국 최대 규모의 사천왕도를 비롯해 조선후기 불화 70여점 및 진영 40여점, 책판 16종, 편액 23종 등 중요한 문화재를 좁은 규모에서 어렵게 관리해 왔다.

주지 경선 스님은 “수행과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성보관 건립

을 위해 오래전부터 진력을 다해왔다”며 “범어사는 한국불교의 중심이다.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산시 관계자를 비롯한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착공식에는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과 주지 경선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송하 스님, 정현민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피부 · 치아 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소화불량, 스트레스(화병), 가슴통증, 수행시상기증, 얼굴모낭충,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대장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